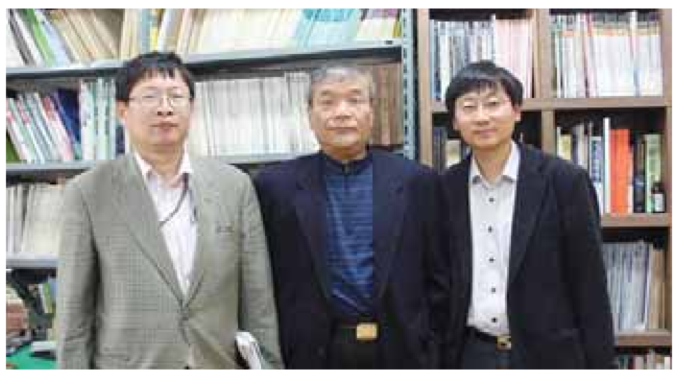
김재률·임인택·주경광 전남대 교수
브레이크스루 기초물리학상 받았다


전남대 임인택(왼쪽부터) 물리교육과 교수, 김재률 명예교수, 주경광 물리학과 교수.

전남대 물리학 교수들이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혁신)상을 받았다.

전남대는 "김재률 명예교수, 임인택 물리교육과 교수, 주경광 물리학과 교수 등 3명이 브레이크스루 재단의 기초물리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은 물리학자 출신 벤처투자가 유리 밀너의 '기초과학상을 만들자'는 제안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이 동참하면서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이후 기초물리학상, 생명과학상, 수학상이 차례로 제정됐다. 일명 실리콘밸리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김 교수 등은 다른 대학 교수 6명과 중성미자 연구를 진행하는 5개 팀에 포함돼 공동 수상하게 됐다.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5개 팀 수상자는 모두 1370명에 이른다. 김 교수 등은 우주소립자 물리연구소 소속으로 일본 중성미자 실험에 참여했다.

브레이크스루상 상금은 3개 부문별로 각각 300만 달러(약 34억 8000만원)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술혁신은 두 얼굴, 순기능보다 역기능 경계하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특강 경제평론가 윤석천씨

일자리 사라지고 소득 불균형
인간과 로봇의 '무한 경쟁'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

"기술 혁신은 두 얼굴.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천사, 일자리와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악마이지요. 기술은 그러나 죄가 없어요. 천사로 만들지 악마로 만들지 그건 인간의 몫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청중을 상대로 기술 혁신의 두 얼굴에 대해 얘기했다. 다소 딱딱한 소재, 아직 논쟁이 진행중인 주제를 택한 그는 이 사회의 리더, 어느 한 조직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라면 한 번쯤 인간과 기술의 '경주'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기술 혁신은 제조 원가를 대폭 줄이고 여태 보지 못했던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한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으로 매일 먹어야했던 당뇨약은 먹는 날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 구글이 등장시킨 무인 자동차로 운전면허증 없이도, 대리운전기사 없이도 자유롭게 어디든 갈 날이 찾아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순기능 못지않게 우리 이웃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 수 있는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 혁신으로 탄생한 로봇은 점차 우리 이웃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고된 노동이지만 매력있는 보수를 제공했던 일자리가 하나 둘 줄어들면서 중산층은 쪼그라들고 이는 결국 구매력 감소를 불러온다. 기술혁신의 이면을 경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경기 불황. 그리고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는 것이다.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의 등장으로 운전직종(버스, 택시, 대리운전기사)·교통경찰·운전면허 발급 관청의 영역은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진다.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자전거 수리점 등 10~20년 전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었던 업소들은 어디로 갔고 이들에게 상품을 공급했던 제조사와 근로자들은 어떤가. 114 상담원의 역할은 기술 혁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언제쯤 생겨날까, 과연 생겨나기는 할까.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특강에서 경제 평론가 윤석천씨가 '기술 혁신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소 암울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로봇과 인간의 경주는 사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고 이미 일부 선진국에선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분배가 골고루 되지 않으면 인간은 사회 시스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삶은 고달파지는데 생산력과 부(富)는 소수에게 집중되면 사회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로마제국과 우리나라 왕조가 망한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한다고도 했다.

윤씨는 "두 얼굴을 가진 기술 혁신을 천사로 만들지, 악마로 만들지는 인간의 선택이고 결국에 가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 져야할 문제"라며 강연을 마쳤다.

윤석천씨는 투자 전문가로 경제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국능률협회와 대한경제교육개발원 등에서 트레이딩에 관한 강의를 한 바 있으며, 광주일보에도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희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교수
악안면 성형재건 외과학회 회장 선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오희균(구강악안면 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54차 대한악안면 성형재건 외과학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오희균 교수는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전남대병원 치과진료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재무이사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암연구소장,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학술자문위원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사랑의 김장김치 31사단에 전달

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최근 '사랑의 마음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마련한 김장 김치를 '육군 제 31보병 사단' 에 전달했다.
〈광주여대 제공〉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삼성 드림락(樂)서'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청소년들 직업 체험하고 진로 상담 받고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
DJ센터서 '드림락서' 개최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광명)가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페스티벌인 '2015 삼성 드림락(樂)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26개 중·고교 학생과 교사 2100여 명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드림락서는 진로 결정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희망학과와 직업을 체험하고 전문가 멘토와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꿈을 낙서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신조어다.

이날 행사는 체험중심의 진로박람회와 유명 인사들의 강연과 축하공연이 있는 토크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다양한 직업·학과 체험부스와 각 분야 전문가 멘토들을 만날수 있는 공간에서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광명 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추계학술대회 2년 연속 우수 연제상

김희경·윤지희 교수팀 영예

김희경 교수

윤지희 교수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들이 추계학술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희경·윤지희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 연제는 각각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방사성요오드 치료에서 높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과 간경화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 치료시 당화혈색소가 혈당조절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임상적 의미가 큰 연구다. 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호르몬 분비 이상과 관련된 당뇨병,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질환, 골다공증 등을 치료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철주 무안군수 명예박사학위

김철주(사진) 무안군수가 18일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군수는 취임 후 126억원에 이르는 무안군의 지방채무를 완전 해소하고, 2년 연속 1000억원 국비 확보를 달성하는 등 무안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무안군이 발전해야 지역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목포대학교도 무안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악=임동현기자 idh@

크리스마스 씰 모금 캠페인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민영돈 전 조선대병원장·사진)는 오는 22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FC-울산현대의 홈경기에 앞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캠페인 및 무료 결핵검진(흉부X-선 촬영. 객담검사)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FC구단 관계자 및 주요 선수 등이 동참한다. 경기 전 광주FC에서는 구단의 급여 1% 기부 나눔 장학금 전달식, 두드림 난타공연, 여성댄스그룹 '스위트'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박종래·오남순씨 아들 현채군 이계만(청해복집 대표)·최영자씨 딸 상희양=21일(토) 오후 1시10분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웨딩의전당 30층 아도니스홀.

▲모덕순씨 아들 한광수군 고달석·나애순씨 딸 영미양=21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라붐웨딩홀 1층.

▲김병기·명춘화씨 아들 태옥군 박영희씨 딸 김현민양=21일(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호텔캐슬 아모르홀.

▲이기채(지앤씨유한회사 대표)·마옥순씨 아들 준혁군 송덕이(고려종합상사 대표)씨 딸 민영양=21일(토)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마륵동 베일리컨벤션 2층 오비도스홀.

▲조길선(전 광주시 상수도 남부사업소장)·김안자씨 아들 영준군 국형옥·이인숙씨 딸 진이양=22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라붐웨딩홀 3층 더 하우스홀.

▲조성철(광주지하철 송정역장)· 최성숙씨 아들 주영군 박승재·유채원씨 딸 지후양=28일(토)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노현동 더배일리하우스, 피로연 20일(금)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고재량(전 광주시 북구 도시국장)·신현순씨 아들 요석군 김사열·이교선씨 딸 혜진양=29일(일) 낮 12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후생관 2층.

종친회

▲남양송씨 야은공종중총회(회장 송순권)=20일(금) 고흥 대서면 화천길 중선재각, 안건 당면 현안사항 협의.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 이화월례회(이보희)=23(월)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향우회

▲재광나주향우회(회장 유덕찬) 창립 50주년 나주인 한마음 대축제=28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이에스웨딩컨벤션 2층 문의 010-2629-0808.

▲재광영암향우회(회장 조성희) 제65회 정기총회 및 영암인 한가족의 밤=12월10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마륵동 아이리스웨딩홀 062-385-7800, 담당자 성만기 010-8620-4613 .

동창회

▲포두초 43회 동창회(회장 김팔만)=12월 5일(토) 낮 12시 부안군 변산면 대명리조트(양금실) 010-8885-8803.

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언) 2015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의 밤=12월 4일(금)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문의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모집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부음

▲전옥금씨 별세 이종휴·근휴·점숙·덕순·명순씨 모친상=발인 20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정복순씨 별세 심우남·우신·우근·금순·명순·정원·정화씨 모친상=발인 20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영순 님 (여/91세)
子/子婦 : 양준영/김연심, 준철/최순영
女/壻 : 양준화/서종필
•발 인 : 11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김현경 님 (여/81세)
子/子婦 : 정균호/염미화
女/壻 : 정선희/김현철, 선경/박민호, 경희/권수용
•발 인 : 11월 19일
•장 지 : 담양 대치선영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전종례 님 (여/89세)
子/子婦 : 김만선/임해경
女/壻 : 김정숙/연희, 장상용 孫 : 김인제/자영
•발 인 : 11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서경님 님 (여/77세)
子/子婦 : 나우영/구영화, 기광/유영미, 현식/장경란
未亡人 : 선우화
•발 인 : 11월 19일
•장 지 : 화순 북면선영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주창현 님 (남/69세)
子/子婦 : 주경철/정미리, 호경 女 : 주희 未亡人 : 민영란
•발 인 : 11월 20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